

#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박영배<sup>1</sup> · 김명숙<sup>2</sup>

세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sup>1</sup>, 세명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The Influence of Leadership Life Skill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Park, Young Bae<sup>1</sup> · Kim, Myoung Sook<sup>2</sup>

<sup>1</sup>School of Global Management, Semy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urpose:** Nursing students are expected to show self-leadership. For this study, leadership life skills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examined for their influence on self-leadership in student nurses.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leted by 239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self-leadership was 3.49, for leadership life skills, 3.65, and for achievement motivation, 3.4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task orientation ( $\beta = .25, p < .001$ ), responsibility ( $\beta = .24, p < .001$ ), challenge spirit ( $\beta = .22, p < .001$ ), future orientation ( $\beta = .16, p = .001$ ), leadership life skills ( $\beta = .08, p = .009$ ),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beta = -.09, p < .001$ ).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51.1%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F = 41.87, p < .001$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are leadership life skills and achievement moti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for enhancement of task orientation, responsibility, challenge spirit, future orientation, and leadership life skills.

**Key Words:** Leadership, Life, Skills, Achievement, Motiva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고도의 지식경제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관리와 리더십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병원조직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리더십역량 개발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문제해결이나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1].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목표설정을 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자기관리 개념으로, 창의성과 자발적인 능력 발휘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높여준다[2]. 셀프리더십은 행위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 사고패턴전략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즉, 건설적 사고패턴전략은 어려운 상황을 장애보다는 기회요인으로

**주요어:** 리더십, 생활, 기술, 성취, 동기

**Corresponding author:** Kim, Myou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65 Semyung-ro, Jecheon 27136, Korea.  
Tel: +82-43-649-1354, Fax: +82-43-649-7051, E-mail: 629arin@semyung.ac.kr

**Received:** Aug 16, 2017 | **Revised:** Oct 30, 2017 | **Accepted:** Nov 27,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통제를 하는 것이고, 행위중심전략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긍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자연보상전략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경험을 증진시켜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3]. 특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문제 발견과 해결과정에서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윤리적 책임인식능력, 그리고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셀프리더십 역량이 요구된다[4]. 셀프리더십 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은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여 성공적인 성인으로 잘 이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끌어어나가는 셀프리더십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4]. 또한 셀프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5]. 그러므로 대학생활 동안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개발하여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돕고,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효과적인 간호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생활기술은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조직관리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등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6].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과정과 향후에 간호사로서 양질의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이해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인간관계, 조직관리 등의 리더십 생활기술이 필요하다[7]. 리더십 생활기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주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조직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조직관리 기술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윤리적 책임인식능력, 그리고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셀프리더십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4,8]. 그리고 리더십 생활기술은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이행하게 하는 핵심요인인 동시에[9], 중요 실천적 리더십 기술이기 때문에 리더십 생활기술을 향상시킨다면 간호대학생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설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셀프리더십 역량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10]. 그러나 주요 실천적 기술인 리더십 생활기술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7], 자기존중감과과의 관계[17,18]를 확인하는 연구가 있을 뿐 리더십 생활기술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적절한 모험심이 있으며, 과제 지향적이고,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높은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높은 성취만족을 기대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11]. 특히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달성에 대한 성취동기가 중요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인지적, 행동적 전략이 포함된 셀프리더십은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꼭 필요한 역량이므로[12] 성취동기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성취동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취 관련변인으로서의 성취동기를 다룬 연구[19],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20], 셀프리더십, 성취목표동기, 자기주도 학습,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검증[12], 그리고 성취동기와 자기 통제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11]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셀프리더십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규명한 연구로는 학습인식[4], 통제위, 창의성,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13], 긍정적 정서, 임상실습만족도[14], 자아존중감, 전문직 자아개념[15], 임상수행능력[16]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만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맞춤형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셀프리더십, 리더십 생활기술, 및 성취동기 정도를 파악하고,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 성취동기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 및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시와 W시에 위치한 세 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것을 허락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7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중간)  $F=0.15$ , 검정력  $1-\beta=.95$ , 예측요인 19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의 크기는 217명으로 대상자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239명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는 탈락자를 고려하여 250명에게 자료수집하여 이 중 11부를 제외한 239명(95.6%)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리더십 생활기술

리더십 생활기술은 Wingenbach [6]가 사용한 Leadership Life Skill (LLS) 도구를 Choi [8]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커뮤니케이션기술 2개 문항, 의사결정기술 5개 문항, 인간관계기술 7개 문항, 학습능력기술 4개 문항, 조직관리기술 3개 문항, 자기이해기술 6개 문항, 그룹활동기술 3개 문

항 등 총 30개 문항의 5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8]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하부영역별로는 커뮤니케이션기술 .32, 의사결정기술 .72, 인간관계기술 .78, 학습능력기술 .69, 조직관리기술 .45, 자기이해기술 .76, 그룹활동기술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하부요인에서 커뮤니케이션기술 .28, 의사결정기술 .77, 인간관계기술 .79, 학습능력기술 .67, 조직관리기술 .34, 자기이해기술 .73, 그룹활동기술 .71이었다.

#### 2)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McClelland [22], Herman [23]이 개발한 성취동기 도구를 Park [2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과업지향성 7개 문항, 모험심 6개 문항, 도전의식 6개 문항, 자신감 9개 문항, 책임감 6개 문항, 미래지향성 13개 문항 등 총 47개 문항의 5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4]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하부요인에서 과업지향성 .78, 모험심 .86, 도전의식 .80, 자신감 .84, 책임감 .84, 미래지향성 .78로 측정되었다.

####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 [3]가 개발한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SLQ) 도구를 Shin, Kim, Han [10]이 번역한 도구를 Kim [2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행위중심전략 6문항, 자연보상전략 6문항, 건설적 사고패턴전략 8문항 등의 3개 하위영역으로 총 20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0~.87, 선행연구 Kim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하부요인에서 행위중심전략 .81, 자연보상전략 .84, 건설적 사고패턴전략 .87로 측정되었다.

### 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J시와 W시에 위치한 세 개 대학교에 재학 중

이면서 스스로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05월 22일부터 2017년 06월 02일까지 이루어졌다.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책임자가 설문내용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연구조사원 훈련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조사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만약 문제가 초래될 때는 설문지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인당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끝난 즉시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은 총 25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239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SMU-2017-05-001)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의 비밀유지, 연구참여의 철회 권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설문지에는 대상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익명성이 확보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제한된 구역에 보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리더십 생활기술,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비교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 및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학년은 1학년 57명(23.9%), 2학년 61명(25.5%), 3학년 60명(25.1%), 그리고 4학년 61명(25.5%)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122명(51.0%)으로, 학업성적은 평균평점 3.00~3.69점이 170명(71.1%)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정도는 '좋음'이 144명(60.3%),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145명(60.7%), 동아리활동 만족도도 '보통'이 114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활동 참여여부는 '한다'가 128명(53.6%)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도 '한다'가 131명(54.8%)으로 더 많았으며,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보통'이 129명(54.0%)으로, 리더십 보유수준은 '보통'이 153명(64.0%)으로, 교수와의 관계 역시 '보통'이 165명(69.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정도

연구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은 5점 만점에 평균  $3.65 \pm 0.40$ 점으로, 대인관계기술  $3.88 \pm 0.50$ 점, 그룹활동기술  $3.80 \pm 0.57$ 점, 자기이해기술  $3.71 \pm 0.51$ 점, 커뮤니케이션기술  $3.70 \pm 0.61$ 점, 의사결정기술  $3.65 \pm 0.56$ 점, 학습능력기술  $3.47 \pm 0.56$ 점, 조직관리기술  $3.31 \pm 0.5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2 \pm 0.49$ 점으로, 미래지향성  $3.72 \pm 0.71$ 점, 책임감  $3.58 \pm 0.60$ 점, 자신감  $3.48 \pm 0.62$ 점, 도전의식  $3.41 \pm 0.63$ 점, 과업지향성  $3.30 \pm 0.61$ 점, 모험심  $3.04 \pm 0.80$ 점의 순이었다. 셀프리더십 문항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49 \pm 0.49$ 점으로 건설적 사고패턴전략  $3.62 \pm 0.55$ 점, 행위중심전략  $3.55 \pm 0.56$ 점, 자연보상전략  $3.32 \pm 0.65$ 점의 순이었다(Table 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리더십 보유수준,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F=3.57$ ,  $p=.015$ ), 학업성적은 평균평점 2.99점 이하가 3.00~3.69점과 3.70점 이상보다( $F=5.77$ ,  $p=.004$ ), 대인관계는 '좋음'이 '보통'



보다( $F=3.71, p=.026$ ),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보다( $F=4.56, p=.011$ ),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에서는 ‘한다’( $t=2.54, p=.012$ )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F=12.73, p<.001$ ), 리더십 보유수준은 ‘높음’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F=7.50, p<.001$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보다( $F=4.41, p=.013$ ) 셀프리더십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1).

#### 4. 대상자의 리더십 생활기술 및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리더십 생활기술( $r=.54, p<.001$ ) 및 성취동기( $r=.76, p<.001$ )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셀프리더십과 리더십 생활기술의 하위요인인 커뮤니케이션기술( $r=.23, p<.001$ ), 의사결정기술( $r=.53, p<.001$ ), 대인관계기술( $r=.44, p<.001$ ), 학습능력기술( $r=.53, p<.001$ ),

**Table 1.**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N=239$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leadership		
			M±SD	t or F (p)	Scheffé
Grade	First year <sup>a</sup>	57 (23.9)	3.59±0.37	3.57 (.015)	a > c
	Second year <sup>b</sup>	61 (25.5)	3.56±0.59		
	Third year <sup>c</sup>	60 (25.1)	3.32±0.47		
	Fourth year <sup>d</sup>	61 (25.5)	3.51±0.49		
Dwelling type	Home <sup>a</sup>	52 (21.8)	3.44±0.48	1.46 (.234)	
	Dormitory <sup>b</sup>	122 (51.0)	3.55±0.47		
	Rented room <sup>c</sup>	65 (27.2)	3.44±0.54		
Cumulative grade	≤ 2.99 <sup>a</sup>	21 (8.8)	3.79±0.60	5.77 (.004)	a > b, c
	3.00~3.69 <sup>b</sup>	170 (71.1)	3.49±0.47		
	≥ 3.70 <sup>c</sup>	48 (20.1)	3.36±0.49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sup>a</sup>	144 (60.3)	3.56±0.47	3.71 (.026)	a > b
	Average <sup>b</sup>	93 (38.9)	3.39±0.52		
	Poor <sup>c</sup>	2 (0.8)	3.60±0.3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sup>a</sup>	70 (29.3)	3.64±0.54	4.56 (.011)	a > b
	Average <sup>b</sup>	145 (60.7)	3.43±0.45		
	Unsatisfied <sup>c</sup>	24 (10.0)	3.42±0.52		
Club activity	Yes	128 (53.6)	3.53±0.50	1.29 (.201)	
	No	111 (46.4)	3.45±0.49		
Satisfaction with club activity	Satisfied <sup>a</sup>	70 (29.3)	3.62±0.54	3.03 (.051)	
	Average <sup>b</sup>	114 (47.7)	3.44±0.43		
	Unsatisfied <sup>c</sup>	55 (23.0)	3.45±0.55		
Service activity	Yes	131 (54.8)	3.57±0.48	2.54 (.012)	
	No	108 (45.2)	3.41±0.49		
Satisfaction with service activity	Satisfied <sup>a</sup>	66 (27.6)	3.74±0.48	12.73 (< .001)	a > b, c
	Average <sup>b</sup>	129 (54.0)	3.42±0.44		
	Unsatisfied <sup>c</sup>	44 (18.4)	3.35±0.54		
Leadership level	High <sup>a</sup>	31 (13.0)	3.78±0.48	7.50 (< .001)	a > b, c
	Average <sup>b</sup>	153 (64.0)	3.48±0.49		
	Low <sup>c</sup>	55 (23.0)	3.36±0.45		
Relationship with professors	Satisfied <sup>a</sup>	71 (29.7)	3.63±0.58	4.41 (.013)	a > b
	Average <sup>b</sup>	165 (69.0)	3.44±0.45		
	Unsatisfied <sup>c</sup>	3 (1.3)	3.15±0.09		

조직관리기술( $r=.19, p=.004$ ), 자기이해기술( $r=.49, p<.001$ ), 그룹활동기술( $r=.38, p<.001$ )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성취동기의 하위 요인인 과업지향성( $r=.68, p<.001$ ), 모험심( $r=.44, p<.001$ ), 도전의식( $r=.62, p<.001$ ), 신뢰감( $r=.52, p<.001$ ), 책임감( $r=.66, p<.001$ ), 미래지향성( $r=.49, p<.001$ )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2.** Levels of Leadership Life Skill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leadership (N=239)

Variables	M±SD	Min-Max
Leadership life skills	3.65±0.40	2.59~4.78
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3.88±0.50	2.71~5.00
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3.80±0.57	1.67~5.00
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3.71±0.51	2.17~5.00
Communication skills	3.70±0.61	1.00~5.00
Decision making skills	3.65±0.56	2.00~5.00
Learning skills	3.47±0.56	2.00~5.00
Management skills	3.31±0.53	1.67~5.00
Achievement motivation	3.42±0.49	1.97~4.78
Future orientation	3.72±0.71	1.80~5.00
Responsibility	3.58±0.60	2.00~5.00
Confidence	3.48±0.62	1.00~5.00
Challenging spirit	3.41±0.63	2.00~5.00
Task orientation	3.30±0.61	1.17~5.00
Adventurous spirit	3.04±0.80	1.00~5.00
Self-leadership	3.49±0.49	1.92~4.94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62±0.55	1.75~5.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3.55±0.56	2.00~5.00
Natural reward strategies	3.32±0.65	1.50~5.00

**Table 3.** Correlation Matrix among Measured Variables

(N=239)

Variables	Behavior-focused strategies	Natural reward strategies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Total leadership
	r (p)	r (p)	r (p)	r (p)
Leadership life skills	.48 (<.001)	.38 (<.001)	.52 (<.001)	.54 (<.001)
Communication skills	.20 (.002)	.13 (.043)	.67 (<.001)	.23 (<.001)
Decision making skills	.56 (<.001)	.34 (<.001)	.44 (<.001)	.53 (<.001)
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38 (<.001)	.34 (<.001)	.41 (<.001)	.44 (<.001)
Learning skills	.48 (<.001)	.37 (<.001)	.52 (<.001)	.53 (<.001)
Management skills	.17 (.010)	.15 (.022)	.16 (.016)	.19 (.004)
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37 (<.001)	.37 (<.001)	.51 (<.001)	.49 (<.001)
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32 (<.001)	.27 (<.001)	.38 (<.001)	.38 (<.001)
Achievement motivation	.61 (<.001)	.62 (<.001)	.68 (<.001)	.76 (<.001)
Task orientation	.53 (<.001)	.57 (<.001)	.60 (<.001)	.68 (<.001)
Adventurous spirit	.30 (<.001)	.39 (<.001)	.41 (<.001)	.44 (<.001)
Challenging spirit	.46 (<.001)	.49 (<.001)	.63 (<.001)	.62 (<.001)
Confidence	.51 (<.001)	.37 (<.001)	.45 (<.001)	.52 (<.001)
Responsibility	.55 (<.001)	.56 (<.001)	.56 (<.001)	.66 (<.001)
Future orientation	.40 (<.001)	.40 (<.001)	.43 (<.001)	.49 (<.001)

##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리더십 생활기술, 성취동기,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학업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리더십 보유수준 및 교수와의 관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독립변수들 중에 학년, 학업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리더십 보유수준, 교수와의 관계 등은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370~.740으로 0.1 이상, 분산팽창요인은 1.352~2.702로서 기준인 10보다 작아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 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이 1.908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취동기에서 과업지향성( $\beta=.25, p<.001$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감( $\beta=.24, p<.001$ ), 도전의식( $\beta=.22, p<.001$ ), 미래지향성( $\beta=.16, p=.001$ ), 리더십 생활기술( $\beta=.08, p=.009$ ), 그리고 대인관계( $\beta=-.09, p=.041$ )로서 6개 변수가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51.1%였다( $F=41.87, p<.001$ ).

Table 4.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N=239)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64	.19		3.37	< .001
Task orientation	.20	.06	.25	3.67	< .001
Responsibility	.20	.05	.24	4.03	< .001
Challenging spirit	.18	.04	.22	4.01	< .001
Future orientation	.11	.03	.16	3.40	.001
Leadership life skills	.10	.07	.08	1.43	.009
Interpersonal relationship (Dummy 2)*	-.09	.04	-.09	-2.06	.041
$R^2=.511$ , Adjusted $R^2=.499$ , $F=41.87$ , $p<.001$					

\*Dummy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0, Dummy 1=Average, Dummy 2=Bad).

## 는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본자질로서 셀프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의 전체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65점으로, Lee [7]의 연구결과인 3.63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리더십생활기술의 하부요인에서 인간관계기술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는 선행연구인 Lee [7]의 연구에서의 3.71점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기술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임상실습과정을 통하여 환자, 가족, 의료팀원 및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기술이 발전한 것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취동기의 전체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11]의 연구에서의 실험집단의 평균평점 2.74점, 통제집단의 2.71점보다는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이 성취동기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취동기 하부요인에서는 미래지향성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Park [11]의 선행연구결과처럼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간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 다소 어려운 일, 성취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일,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에 관심을 두는 행동특성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심은 3.04점으로 가장 낮았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일, 신기한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이나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려는 모험심이 낮았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고취시켜주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셀프리더십의 전체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49점으로, Park [26]의 3.44점, Lee, Park과 Kim [5]의 선행연구결과인 3.38점보다는 높았고, Park과 Han [27]의 연구에서의 3.64점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셀프리더십의 하부영역에서 건설적 사고패턴전략의 평균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던 이유는 간호대학생들이 어렵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장애요인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고통제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과제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Lee [28]가 강조하였듯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셀프리더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차원에서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셀프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자연보상전략은 3.32점으로 가장 낮았던 결과를 볼 때, 이들에게 가능한 어렵고 흥미 없는 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경험하게 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마련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학업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여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리더십 보유수준 및 교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년, 학업성적, 학과선택 동기, 대인관계, 성격성향,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 [26]의 연구결과와 건강상태, 대인관계, 종교,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과 Han [27]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3학년(3.32점)보다 1학년(3.59점)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았던 결과는 Lee [29]의 연구결과인 3학년 3.64점, 1학년 3.56점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1학년은 간호학과 입학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높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았지만 3학년은 임상실습이 시작되면서 학습 환경이 강의실에서 병원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른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셀프리더십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3학년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실습과 핵심간호술의 강화를 통한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완해주고,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함양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학업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리더십 보유정도 및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기 때문에 학업흥미와 전공만족도를 높여주는 학습 환경과 교육활동을 통해 학업성적을 향상시켜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강화,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및 교수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통해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는 열정과 자율성을 촉진하여 셀프리더십을 향상시켜주는 내용이 대학생들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27]. 특히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을 돕기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이를 담당할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관계, 리더십 개발에 대한 교수자의 철학 및 구체적인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셀프리더십과 리더십 생활기술에서는 의사결정기술과 학습능력기술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취동기에서는 과업지향성과 책임감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셀프리더십과 의사결정기술과의 상관성이 높았던 것은 대학생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해결책을 결단성 있게 실천하려는 의사결정능력이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30]. 그리고 임상실습과정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대상자의 문제해결 훈련이나 학교 내에서의 시뮬레이션실습과정에서의 문제해결과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기술은 간호대학생들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추진력 있게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셀프리더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사결정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리더십코칭 프로그램의 적용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30]. 또한 셀프리더십과 학습능력기술과도 상관성이 높았는데, 이

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려면 토론수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방법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하겠다[13].

회귀분석을 통하여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성취동기에서는 과업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미래지향성, 리더십 생활기술, 그리고 대인관계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성취동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다음으로 자기통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Park [11]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셀프리더십 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근성과 과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노력하며, 우연을 배제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통제가능한 일에 도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에 보상이 돌아오는 것을 선호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19]. 그리고 창의성 교양수업을 통해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이 향상되었다는 Kim과 Kim [19]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1학년 때부터 창의성 개발 관련교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찾아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성취감이 간호대학생을 동기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도전의식을 갖고 과제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책임지는 성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셀프리더십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촉진하려면 리더십 생활기술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사례연구나 시뮬레이션실습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돕는 창조적 기술과 비판적 사고기술을 증진시켜주는 토론, 자기성찰 글쓰기나 리더십코칭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취동기는 선천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과업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미래지향성이 포함된 성취동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바람직한 대학생생활을 돕고 창의성과 자발적인 능력발휘를 통해 개인의 성장을 돕도록 해야 하겠다.

##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셀프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셀프리더십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장애요인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고통제와 행동을 하는 건설적 사고패턴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리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들은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에서는 과업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미래지향성으로,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서는 대인관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리더십생활기술과 과업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미래지향성이 토대가 된 성취동기를 강화하여 향후 학업 및 진로를 위해 자기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돕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의 하부요인인 과업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미래지향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해 볼 것과, 추후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예측하는 다른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Lee SY, Kim Y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3):309-318. <https://doi.org/10.14400/JDC.2016.14.3.309>
2. Watson L. Self-leadership: Becoming an exceptional leader. *Radiologic Technology*. 2004;75(6):468-470.
3. Houghton JD, Neck CP.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02;17(7-8):672-691.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4. Lee MO, Lee MY, Kim SY.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3):417-42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417>
5. Lee YS, Park SH, Kim JK.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6):229-240.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6. Wingenbach GJ.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issertation]. Iowa: Iowa State University; 1995.
7. Lee MR.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65-73. <https://doi.org/10.14400/JDC.2016.14.1.65>
8. Choi CW.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9. Park HH. The effect of leadership development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1;18(2):1-20.
10. Shin YK, Kim MS, Han YS.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9;6(3):313-340.
11. Park WH.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control on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SS21)*. 2016;7(3):545-570. <https://doi.org/10.22143/HSS21.7.3.29>
12. Kim EJ.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14(2):303-326.
13. Choi JY.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Daejeon: Eulji University; 2016.
14. Lee SN, Kim JA.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ffectively, self-leadership,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2):125-136.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25>
15. Seo BM, Park HJ.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8(4):149-161. <https://doi.org/10.12811/kshsm.2014.8.4.149>
16. Do ES, Seo YS.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4;21(3):283-291. <https://doi.org/10.7739/jkafn.2014.21.3.283>
17. Lee HK.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s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278-284.
18. Miller JP, Bowen BE.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1993;31(1):68-76.
19. Kim HJ, Kim HJ. The effects of creative education on the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a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5;9(4):245-280.
20. Cha HJ, Go YM, Kim JH, Byun SJ.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fresh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9):293-313.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9.293>
21. Sung MH.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0;17(1):90-98.
22. McClelland DC. Toward a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1965;20(5):321-333.
  23. Herman HJM. A questionnaire meas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70;54(4):353-363.
  24. Park GS. The achievement motive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98.
  25. Kim JY. Relationships between freshmans' self-leadership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3;32(6):43-56.
  26. Park HJ.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27-236.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27. Park HS, Han JY.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16(3):695-706.  
<https://doi.org/10.7465./jkdi.2015.26.3.695>
  28. Lee JS.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0):253-260.
  29. Lee GY. Levels of self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 in metropolita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6;22(6):233-253.
  30. Lee SH. The effects of leadership coaching program on the self-efficacy and leadership life skill of university students mentor volunteers [master's thesis]. Seoul: Kwangwoon University; 2012.